

YOU
♥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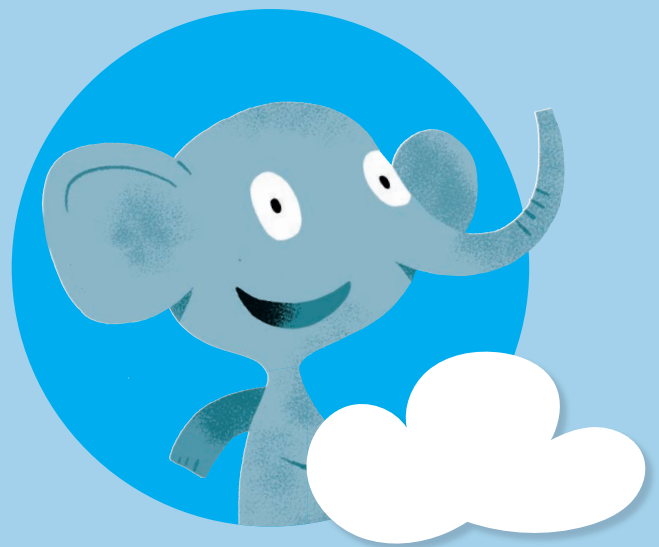
FRIENDS
AROUND THE
WORLD



평화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27



어린이 그룹들을
위한 아이디어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목차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3쪽
인사말	4쪽
신학적 이해	5쪽
어린이 그룹들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제	
환영의 인사	6쪽
평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쪽
한국의 어린이들과 평화	8쪽
어린이들과 스트레스	9쪽
이야기 읽기	10쪽
평화의 비둘기 종이접기	13쪽
그림 그려서 전시하기	13쪽
레바논의 평화기도	14쪽
카메룬의 경쟁하지 않는 놀이	14쪽
찬양	15쪽
축복과 작별	15쪽
출판 정보	16쪽
연락처	16쪽



YOU + ME: FRIENDS AROUND THE WORLD는 어린이 예배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어린이들이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 상대방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www.ems-friends.org **를 방문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참고사항:

이 책자의 아이디어는 팬데믹 기간에 생겼습니다. 만약 코로나-보호-조치를 하지 못해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 부분을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평화는 우리 모두, 특히 전 세계 어린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나 학교 수업에서 우리는 그들과 만나 평화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평화란 참으로 무엇입니까?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 성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책자는 여러분이 어린이 그룹과 함께 ‘평화’라는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어린이들이 평화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음선교연대(EMS)는 한국에 회원 교단이 둘 있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입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긴밀하고, 활발합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통일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평화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는 한국 어린이들의 이야기, 경쟁하지 않고 노는 놀이, 그것에 적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와 스포츠 혹은 여가 시간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신학적 이해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자에 나오는 내용들을 실제로 어린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메룬의 놀이, 종이접기, 레바논의 기도, 우리의 마스코트인 코끼리 엠조(Emso)와 작은 새 피핏(Pipit)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룹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엠조와 피핏

코끼리 엠조와 작은 새 피핏은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배움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마스코트이며,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거나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ems-friends.org/materialien 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FO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는 몇 년에 걸쳐 수집했던 전 세계의 돌들이 담겨 있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교환학생 시절 프랑스 남부에서 가져온 백악기층 절벽의 돌조각 하나, 신혼여행 때 가져온 조약돌 하나, 알프스 산을 걸을 때 얻은 금빛 운모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콘크리트 조각 하나가 있는데, 한쪽 면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베를린 장벽 조각으로 구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의 친구가 1989년에 베를린에서 가져와 내게 준 것입니다. 그는 동서독을 나누었던 경계선 바로 건너편에 30년 이상 살았고, 가장 빠르게 그 경계선 반대쪽인 서독으로 갈 수 있었을 때는 은퇴한 후였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국가로서는 둘로 분단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복음주의교회는 계속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일환이었던 교회들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벽이 붕괴된 후 그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우리를 방문했고,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사람들을 갈라놓았었고, “냉전”의 상징이었던 장벽의 한 조각을 나에게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평화운동 시기에 성장했고, 전쟁과 폭력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중앙위원 중 한 사람이 동독의 붕괴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에 대비했다.”, “그런데 촛불과 기도에는 대책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EMS 총무가 되고나서 나는 처음 몇 주 동안 가능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 회원교회들과 회원조직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에 EMS의 형제자매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북한과의 통일과 평화를 소망하는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회적 차이에 대한 편견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을 위협하는 장벽처럼 커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이 평화 책자로 어린이들과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언제나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정신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의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베를린 장벽의 부서진 작은 조각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평화 책자를 이용하면서 즐거움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디터 하이트만(Dieter Heidtmann)
목사, 복음선교연대(EMS) 총무



신학적 이해

예수, 평화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성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권력과 억압으로 일관했던 당시의 로마제국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와 유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뻗어 나갔고,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양탄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억압과 적대감, 무지, 외로움으로 짠 것이 아니라 해방, 환대, 존중과 보살핌으로 짠 양탄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평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27)

평화는 예수님의 염원이었습니다. 그 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평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부, 명예, 재산, 성공, 돈,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그분의 평화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신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우리가 찾게 되는 평화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진정한 평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두려움에 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와 찢린 손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였고, 그들은 이 확신을 통하여 평화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로 우리가 화해합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 여자로서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지역의 고통이 다른 지역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전쟁, 폭력 그리고 억압과 반대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신체조건, 지식, 경제력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적인 평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 사회 평화,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적인 평화가 저절로 내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평화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에 관한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평화 의례(ritual)가 평화 상태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도록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오현선(Hyun Sun Oh)
목사, 한국



환영의 인사

어린이들에게 “살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있거나 혹은 손을 흔들 때에 살롬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면 좋습니다.

살롬은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이고,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살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 아니라 모두가 평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살롬은 사람과 자연이 잘 지내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와 연관된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평화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평화가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이들의 대답

그룹에서 어린이들의 대답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인용문을 낭독하고, 함께 제공되는 사진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평화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고, 어느 때에 평화가 중요했었는지를 떠올려 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게 평화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미해. 나는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이 즐거워.



남아프리카의 에쉬레히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지만 사람들 종교가 서로 달라서 자주 싸워. 개인적으로 내게 평화란 학교 시험 스트레스가 없을 때를 의미해.



인도의 에블린

내게 평화란 우리가 조화롭게 같이 살고, 일하는 것을 의미해.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종교들이 서로 다르지만 평화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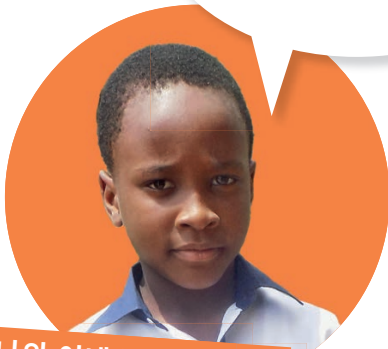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다도



독일의 프리다

내게 평화란 주변이 조용하고, 내가 잘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야.

나는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 나의 부모님이 이름을 프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생각했어.



가나의 어네스트



한국 어린이들과 평화



평화는 보통 전쟁과
독재자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내게 평화는 행복을 의미해.
평화는 집에서 가족과 T.V를 보면서 웃는 것을 의미해.
부모님이 내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평화야.

또 평화는 내가 교회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이야기 할 때야.
내가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을 때 나는 평화를 느껴.



한국의 세론

평화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



한국의 우형



어린이 프로그램
블로그
www.ems-friends.org
에 한국의 평화의
비둘기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형이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평화의 비둘기를 디자인했습니다.
우형이의 비둘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에
빨리 통일과 자유를 주세요. 아멘.”



새론이가 이야기 합니다. “우리 반은 활기가 넘치고 시끄러워. 점심시간에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과 체육이야. 수학은 싫어. 우리는 매일 정오에 수학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야단을 맞아. 그게 부담이야. 또 우리가 맞춤법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그 숙제를 끝낼 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해. 그건 너무 힘들어.”



새론이 가족은 여행과 캠핑을 즐깁니다. 그들은 종종 산에서 걷거나 혹은 해변에서 수영을 합니다. 새론이는 눈이 오는 것을 좋아하고, 다 같이 눈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론이는 가족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새론이 여동생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가장 좋아 하고, 새론이도 같이 합니다.

대담:

어린이들과 스트레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남소현 목사님은 한국의 EMS 담당자입니다. 평화와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에게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어린이들에게 평화는 사랑, 자유 그리고 존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서 한 어린이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또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즐겁게 친구나 가족과 놀 수 있을 때 어린이들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한국에서 학교 교과 과정은 대학 입시 준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공부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학업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어린이들의 내적인 평화는 사회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린이들의 내면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어린이들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경쟁하기 보다는 오히려 함께 배우고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때 사람들이 평화에 가장 잘 다다를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놀기

엠조와 피핏은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서로 매우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많은 것을 함께 했고, 같이 겪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의 대답

엠조와 피핏은 전 세계의 소녀와 소년들을 알기 위해서 세계를 같이 여행하는 것을 제일 좋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노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엠조와 피핏이 곧 당신에게 한 번 찾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엠조와 피핏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엠조와 피핏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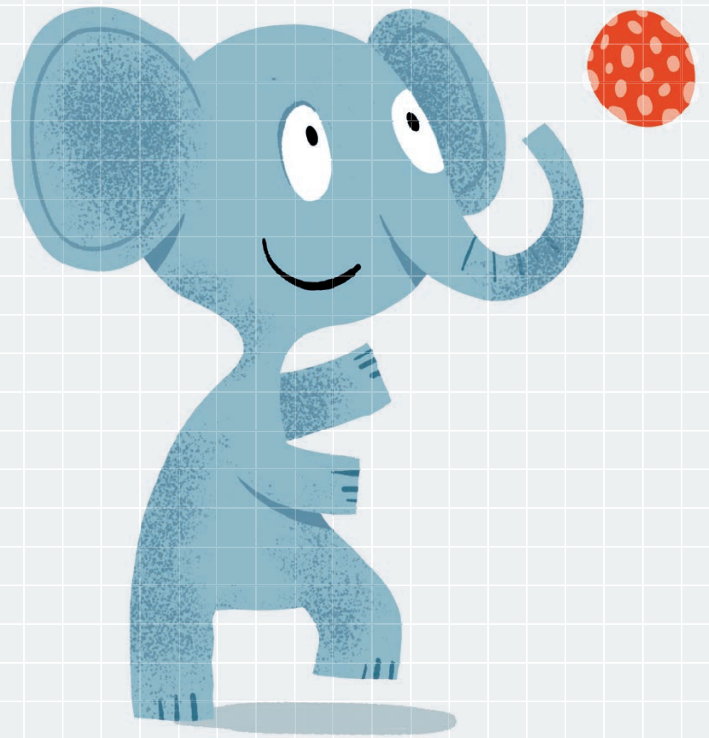
여러분은 그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대답

내가 소개해 줄까요? 지금 코끼리 엠조와 작은 새 피핏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엠조는 우리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코끼리입니다. 그는 땅에 살고, 조용합니다. 그는 나무의 푸른 잎을 먹기 좋아하고, 더울 때에는 긴 코로 물을 뿜어서 몸을 적십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큰 귀로 친구 피핏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피핏은 작고 호기심이 많은 새입니다. 피핏은 인도네시아 이름이고, 그 뜻은 “참새”입니다. 피핏은 재빠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당신 옆으로도 이미 날아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피핏과 엠조는 행복하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해가 빛나고,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둘은 오늘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가 큼니다. “좋은 아침이야, 엠조!! 만나서 반가워.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피핏이 물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피핏. 그거 좋은 이야기인데? 재미있네, 나도 너에게 똑같이 물어 보려고 했거든. 우리가 친구로 똑같은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여기 내가 새 공을 가지고 왔어. 우리 멀리 던지기 놀이 할까?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 좋아. 네가 가진 새 공이 궁금해”, 피핏이 신나게 대답을 하고 공을 집어서 작은 날개로 최대한 멀리 던집니다.

휴! 피핏은 숨을 몰아쉬면서 공을 제대로 던진 것에 매우 즐거워합니다. 엠조가 공이 떨어진 땅 바닥에 작은 돌 하나를 놓아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엠조 차례입니다. 그는 긴 코로 공을 집어 들고, 뒤로 제쳐서 있는 힘껏 앞으로 집어 던집니다. 엠조와 피핏이 뒤에서 공을 바라봅니다. 공은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돌로 표시해 놓은 곳 훨씬 뒤로 넘어 갑니다. 엠조가 환호하며 공중으로 뛰어 오릅니다. 코로 “뛰이이”하며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이겼다”하고 소리 지르며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그때 피핏의 얼굴에 얼마나 슬픈 기색이 보였는지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피핏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돼. 커다란 엠조가 멀리 던지기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해. 엠조는 굉장히 힘이 세고, 크고 강한 코를 가지고 있잖아.”

피핏은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엠조야, 이제 공놀이는 재미없어. 나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산수 문제를 풀어 보자. 너는 구구단을 잘하니?” 자신이 이긴 것에 계속 신이 나서 이번 게임에서도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엠조가 대답합니다. “그래, 당연하지! 시작하자!”

“알았어.” 피핏이 말했습니다. “ 3×4 는 얼마야?” 엠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피핏이 시간을 줍니다. 10초 뒤에 엠조가 자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12! 이제 네 차례야. 3×12 는 얼마야?” 피핏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36. 그건 어떤 아이라도 알고 있어! 엠조야, 8×6 은 얼마야?” 엠조는 다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암산에서는 피핏보다 느리고, 이 게임은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엠조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46?”

“하하” 피핏이 심술궂게 웃으며 “틀렸어. 8×6 은 48이야. 그게 정답이야!” 엠조는 이제 이 게임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빠 쿵쿵쿵쿵 걸어가면서 속상해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피핏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둘은 다시 만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엠조가 말합니다. “안녕, 피핏, 다시 만나서 반가워. 어떡하다 보니 오늘 아침에는 멍청했어. 우리는 그래도 친구잖아, 너와 같이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래,” 피핏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음에 공놀이 할 때는 내가 너처럼 그렇게 멀리 던질 수 없어서 속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자고 했던 거야. 그렇지만 지는 쪽은 슬퍼하고, 이기는 쪽만 행복한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둘 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한동안 말없이 조용히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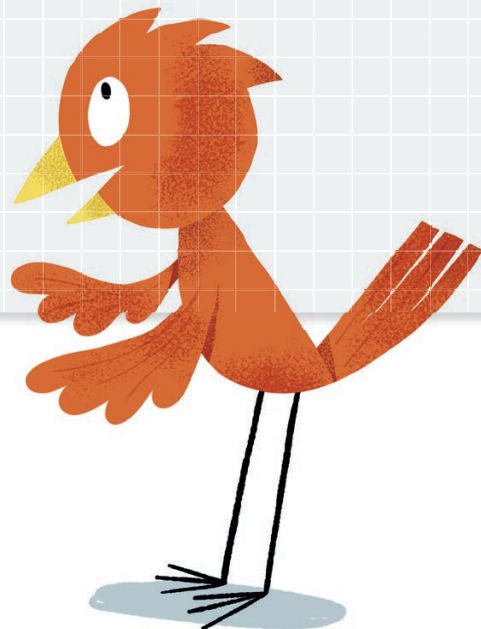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나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둘이 다시 평화
롭게 지낼 수 있었나요?

어린이들의 대답



엠조가 제안을 합니다. “피핏, 이리와 봐. 우리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자!” 그 말에 피핏은 마음이 놓여서 지지킵니다. “그래, 엠조야, 너는 내 친구야. 친구라면 서로가 친구인 걸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거나, 더 나가서 진짜 잘하면 기뻐해야 해.” “네 말이 맞아. 피핏.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 너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즐거워. 나는 긴 코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던질 수 있어. 네가 찬장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컵을 꺼내려고 할 때 키가 닿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함께 하면 우리는 강해!” 엠조가 덧붙였습니다.

둘은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있습니다. 다시 평화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서로를 보듬고 있는 동안 엠조와 피핏은 어떤 일을 더 잘 하든지 혹은 더 못하든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라고 피핏이 지지킵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뻐. 이제 우리 둘이 다 즐거워하고, 누구도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를 해보자.” “피핏,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엠조가 기뻐합니다.

엠조가 새 공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피핏에게 던지며 묻습니다: “피핏, 너는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하니?” 피핏은 공을 잡으면서 웃으며 말합니다. “응, 너도 알다시피 보라색이야. 엠조, 너는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해?” 피핏이 공을 다시 엠조에게 던지자 그가 대답합니다. “오렌지색이지, 그런데 피핏, 너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 피핏은 공을 잡으며 흥얼거립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제일 좋아. 그런데 너는 무얼 제일 잘 먹니?” 엠조가 중얼거리며 대답합니다. “나무 잎들, 그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나뭇잎을 가장 좋아해.” 그렇게 엠조와 피핏은 웃으며 공놀이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에 서로 대답을 합니다.

이말 엠조와 피핏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둘 다 즐거워하는 놀이를 알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엠조와 피핏은 어떻게
평화를 찾았습니까?

어떻게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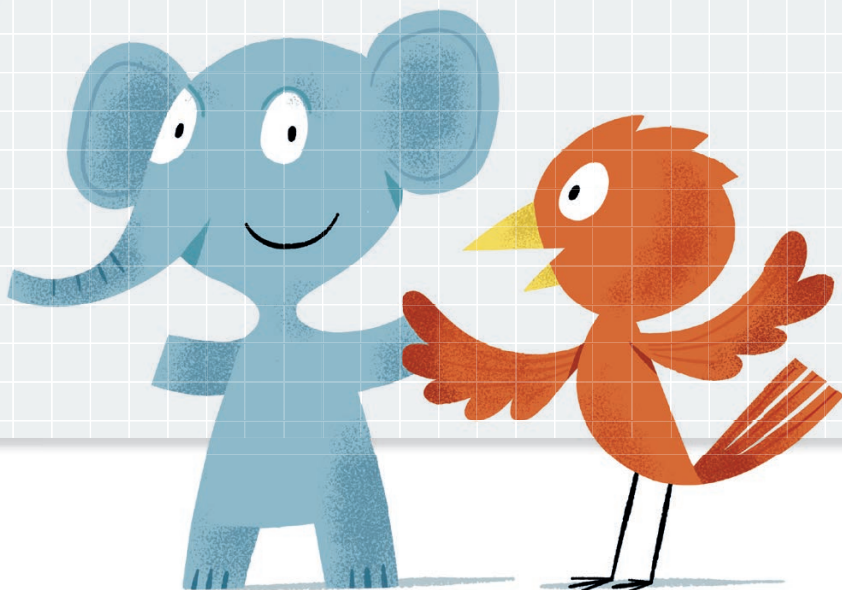
예를 들어

... 같이 이야기 한다 ...

.... 듣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 다시 묻는다. 알게 된다 ...

그게 무슨 뜻이니?



평화의 비둘기 종이접기

어린이들과 함께 순서대로 아래 그림을 따라 하면 평화의 비둘기를 종이접기로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www.ekd.de/faltanleitung-friedenstaube-49832.htm 에서 비디오와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종이접기 시간이 되기를!



그림 그려서 전시하기

어린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작은 전시물로 걸어둡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그것을

EMS: info@ems-friends.org 로 보내주세요.

레바논의 평화기도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치거나 걱정이 있을 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람들이 다시 기쁨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과 분단 있는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구와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마 나스랄라 판 자네 (Rima Nasrallah van Saane) 목사

경쟁하지 않는 놀이

손뼉 치기 공놀이

손뼉 치기 공놀이는 카메론의 놀이인데, 그 나라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하려면 작은 공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같은 숫자로 둘로 나눕니다. 이 놀이를 하려면 장소가 어느 정도 넓어야 합니다. 경기장 가운데에 선을 그어서 둘로 나눕니다.

양쪽 편 어린이들은 가운데 선에서 2미터 정도 떨어져 섭니다. 한 어린이가 공을 다른 쪽 편에 있는 어린이에게 던집니다. 공을 던지는 동안 모든 어린이가 한 번 손뼉을 칩니다. 공을 잡으면 모두가 발을 구릅니다. 그런 다음에 공을 다른 편으로 던지고, 모든 어린이가 앞에서 설명한대로 '쿵' 발을 구르고, '짝' 손뼉을 칩니다. 그렇게 계속하며 점점 빠르게 진행합니다.

가운데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을 한 번에 잡지 못하면 같은 어린이에게 한 번 더 던집니다. 이 놀이에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즐겁게 같이 놀 뿐입니다.

아이디어: UNICEF -
세계의 놀이
2009년. 6쪽



찬양

강 같은 평화

(전통곡조, 헨리 O. 밀스비 [Henry O. Millsby])

평화가 있기를

(기장총회교육원, 2019년)



축복과 작별

어린이들이 둥그렇게 서서 손을 잡거나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손으로 그릇 모양을 만듭니다. 다 함께 아론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아멘”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손을 꼭 잡거나 혹은 눈으로 윙크를 합니다.

아론의 축복은 성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에서 그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수기 6:24-26)



연락처

Evangelische Mission in Solidarität e.V.
YOU + ME: FRIENDS AROUND THE WORLD
Vogelsangstr. 62
70197 Stuttgart

+ 49 (0) 711/ 636 78 44
info@ems-friends.org
www.ems-friends.org

سلام

평화

平和

PERDA-
MAIAN

PEACE

INFO

글로벌한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소책자 “다양성: 우리는 지구촌의 어린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는 교회의 어린이들을 세계 여행길에 나서게 할 것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한국, 가나, 독일 출신 EMS의 여섯 어린이들이 이 책자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관심사와 기쁨,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소책자는 독일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info@ems-friends.org 에서 무료로 주문할 수 있고 www.ems-friends.org/materialien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판 문의 : 기장 총회교육원)



출판 정보

발행인 북음선교연대 Vogelsangstraße 62, 70197 Stuttgart

기획과 편집 안나 칼렌베르거 (Anna Kallenberger), 오현선 (Dr. Hyun Sun Oh), 안네테 슴 (Annette Schumm) // 편집 기여 오현선 (Dr. Hyun Sun Oh), 남소현 (Sohyun Nam), 리마 나스랄라 판 자네 (Dr. Rima Nasrallah van Saane), 디터 하이트만 (Dr. Dieter Heidtmann) // 출판 책임 디터 하이트만 (Dr. Dieter Heidtmann) // 성서 인용 루터역 2017 // 한국어판 성서인용 새번역놀이 아이디어 UNICEF - 세계의 놀이. 2009년. // 사진(저작권은 EMS에 있습니다.) 4-5쪽: EMS, T. 로네스 (Lohnes) / 7쪽: E. 콰메 테트타이 (Kwame Tettey), S. 슈피스 (Spies), K. 제임스 세실 빅토르 (James Cecil Victor), 메가 삼보 (Mega Sambo), T. 로네스 (Lohnes) / 8-9쪽: (Hak Joo Lee), 신성균 (Sung Gyun Shin), S. 남 (Nam) / 13쪽 A. 슴 (Schumm) // 삽화 게르트 알브레히트 // 디자인 büro für visuelles, Stuttgart // 2021

한국어 번역 권오성,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한국어 번역 감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FRIEDEN